

제주도 칠 머리 당 굿과 진도 씻김굿의 춤사위 비교 연구:
지전춤을 중심으로

권범순 · 임상용(제주대학교)

Comparative Research of Chilmuhri Dang Gut in CheJudo and Jijeonchum
of SitKim Gut in Jindo

Kweon, Beom Soon · Ihm, Sang Young(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ed Chilmuhri Dang Gut in Jeju and Jijeonchum of Sitkim Gut in Jindo with the suggested procedures and formalities, functions and sorts of Mumu (shaman's dance) etc, which are on the basis of all kinds of literature's documents, Video tapes, Photographs and documents of Scientific Thesis. According to the field report and daring(intrepidity), the chumsawi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 each chapter is invested and analyzed with camera-editing of shamanism performance. The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Chumsawi forms of Chilmuhri Dang Gut in Jeju are a turning one and a repeating one which is a dance sitting with hand movement only and usually running with furious movements of the Simbang(captain of shamans), simple motion regularly or irregularly. Chumsawi of Sitkim Gut in Jindo is a dance with paper money(bill) standing calmly and moving arms. Dance without movement or going forward and backward than turning. Second, sentiment implied in Chumsawi forms of Chilmuhri Dang Gut in Jeju is mainly dramatic and symbolical motion, and Sitkim Gut in Jindo, it is actually preycl and ritual. The motion looks heavy but simple and artless. Chilmuhri Dang Gut in Jeju is the dance that experiences to be combined with spirits through songs, dances, skills of Simbang followed by Jecha(ancestor-memorial services), and Simbang and audiences play with pleasure. They tease a god, let him change his mind, and the god shows his power of past on the Gutpan, Sitkim Gut in Jindo proceeds its Gut linking between ceremonies(songs&dances), and it has several functions to quit the Gut ceremony, come true the god's thoughts with making mood, replay a role, and describe the contents of each scene by dance. Third, the effect that Chumsawi of shamanism affect other dances is that Chumsawi of Korean Dance is originated from approach the Chumsawi of shamanism faith through form of modern dance and add presentative Chumsawi of shamanism in order to create new traditional modern dance.

1. 서론

굿은 종교적 산물이기 때문에 비교적 전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편이다. 또한 굿은 우리 민족이 오랜 생활사에서 형성된 종교의례인 동시에 예술이다.

우리나라 굿은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저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지방의 생활 양식이 무속적 요소를 포함하여 특징지어주고 전통 문화와 예술을 현재까지 계속되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 민속예술을 이해하고 연구함에 있어 巫舞의 연구는 굿 양식에 있어서 춤의 독자적인 기능과 특징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속의 부용적인 요소는 오늘날 무용예술을 발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창훈, 1991). 이러한 굿춤에 대한 선행자료로는 황해도 철몰이 굿 연구(이노연, 1982), 황해도 배연신 굿(이문옥, 1992), 황해도 진오귀 굿(김덕목, 1999), 황해도 굿의 형식과 구성 관한 분석연구(최인혜, 1998), 우리나라 굿춤의 상징적 연구(양은주, 1989), 제주도 칠 머리 당 영등굿의 구성 및 북 가락 연구(김미영, 1995), 지전춤의 연구(김일화, 1991), 제주도 무속무의 실체와 특이성에 관한 연구(김정희, 1993), 진도 셋김굿에 내재된 무용예술의 사회적 수용가치에 관한 연구(박영주, 1996), 제주도 굿춤에 나타난 춤에 대한 연구(원필녀, 1992), 진도 셋김굿의 지전춤(이동희, 1983), 진도 셋김굿의 무무에 관한 연구(이명실, 1984), 제주도 무속신화연구(이수자, 1989), 제주도 칠 머리 당 굿 춤 연구(이창훈, 1991), 호남 무무에 대한 고찰(정애연, 1982), 무속에 나타난 '恨'과 '신명', 그 양상에 관한 연구(조향, 1987) 등이 있으며 굿춤에서 전통적인 형태와 근원을 찾아 민속무용의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섬 지방이라는 지역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제주도와 진도의 지전춤의 춤사위를 비교 연구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굿 춤은 춤사위에서 그 춤의 미적 범주와 함께 쉽게 삶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함께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해녀의 존재가 경제적인 면에서 큰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해양기상, 해녀들의 생업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게 된다. 내륙지방에 비해 古 문화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도 무속이 지닌 고유성과 특징은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김정희, 1993). 제주도 巫俗舞는 심방(주술적, 종교적 직능자)의 재차에 따라 춤을 통하여 신령과 융합하는 체험을 하고 심방과 회중이 즐겁게 춤을 춤으로서 신을 놀리어 신의 뜻을 움직이고, 이 심방의 굿을 관찰해 봄으로써 춤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낼 수 있다.

지전은 "종이 돈"을 의미하므로 지전춤은 "종이돈을 들고 추는 춤"이란 말로 춤의 형태나 기능에 의한 이름이 아니라 부채춤처럼 춤을 출 때 손에 든 소품에 의한 이름이다. 그러나 지전은 비록 소품이라 해도 굿춤에서 갖는 종교적 의미는 매우 크다. 방황하는 망령을 저승으로 보내는 구원의 굿이기 때문에 망령의 원한을 풀어주며 풍요로운 저승의 삶을 약속하고 미련 없이 저승으로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승으로 가는 여행길이나 저승의 삶에서 꼭 필요한 지전을 들고 춤을 추는 것이다. 지전춤은 종교적인 내면의 "靜"과 예술적인 외형의 "動"이 조화된 단순하고 소박한 춤이라고 볼 수 있다(김정희, 1993). 여러 가지 굿춤 중에서 제주도 칠 머리 당 굿과 진도 셋김굿의 지전춤을 비교·연구하게 된 것은 같은 섬 지방이면서도 비교적 전승이 잘 되어 있고, 이 굿춤의 대표적인 춤이 지전춤이다. 그러므로 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 무속예술의 춤사위에서 제주도 칠 머리 당굿과 진도 셋김굿의 춤사위의 비교 연구는 무속예술의 춤사위 구조와 의미의 비교분석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칠 머리 당 굿과 진도 씻김굿 중 지전춤의 형태와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기능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섬 지방 굿의 민속무용의 자료로 남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에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칠 머리 당 굿과 진도 씻김굿의 지전춤의 춤사위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제주도 칠 머리 당 굿과 진도 씻김굿의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칠 머리 당 굿과 진도 씻김굿의 지전 춤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의 문헌 자료와 Video Tape, 사진, 학술 논문자료를 중심으로 제의적 절차와 형식, 기능, 무무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또 현장 조사와 대담을 통하여 무속공연을 촬영 편집하여 각 장마다의 춤사위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문헌적 자료로는 국문학자, 민속학자에 의해 채록, 보고 되어온 자료로써 「제주도 무속 자료사전」, 「제주도 무속 연구」 등이 있다. 현장조사 자료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굿 공연Video tape나 카세트 테이프를 통하여 채집한 것으로 제 1차는 문예진흥원의 자료이고 제2차와 3차는 본인의 현장조사 자료이다. 필자가 현장 조사 자료로 얻은 공연 tape와 연구 자료 조사상황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는 2001년 10월 8일 진도문예회관에서 행해졌다. 1차 조사는 굿의 자료수집과 정보수집, 굿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2001년 11월 8일 제주 한라문화제때 진도 씻김굿의 기능 보유자가 제주공연을 시연했을 때 이루어졌다. 3차 조사는 2002년 3월 14일 제주 사라봉 공원에서 행해졌는데 굿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되었다. 결과물은 Video tape 2개 였다.

2.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첫째, 공연 video tape는 본인이 촬영하여 직접 편집하고, 다시 CD로 복사했으며, 수집한 다른 video tape또한 편집하여 사진과 Video tape로 만들었다. 둘째, 논문에 수록된 사진들은 video tape속의 동작들을 사진으로 캡처해서 다시 편집하고, CD로 옮겨 동영상으로 만들고, 사진화하였다. 셋째, 기능보유자와의 대담에서 얻어진 자료는 문헌자료와 비교하여 다시 재편집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제주도 칠 머리 당 굿과 진도 씻김굿의 지전춤의 구성 형태는 각기 다른 형태와 같은 형태로 나누어 진다. 제주도 신맞이 춤사위와 원 그리기 춤사위는 진도의 길열기 춤사위와 회오리 바람 춤사위와 같은 형태로

제주도 칠 머리 당 곳과 진도 씻김굿의 춤사위 비교 연구 : 지전춤을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춤사위는 형태가 거의 같거나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의 지전춤이 연극적이라면 진도 씻김굿의 지전춤은 제의적이고 주술적이라 하겠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과 진도 씻김굿의 지전춤의 춤사위의 형태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제주도 칠 머리 당 곳과 진도 씻김굿의 지전춤의 춤사위 형태 비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의 지전춤 구성	비교	진도 씻김굿의 지전춤 구성
① 신 맞이 춤사위	같	① 길열기 춤사위
② 손가락 춤사위	비	② 바람막이 춤사위
③ 감장도는 춤사위	비	③ 외 바람막이 춤사위
④ 앞 춤사위	비	④ 가세질(가위질) 춤사위
⑤ 윗 춤사위	비	⑤ 태극무늬 춤사위
⑥ 팔에 걸치기 춤사위	비	⑥ 좌우 치기 춤사위
⑦ 윗 춤사위	같	⑦ 상모놀음 춤사위
⑧ 원 그리기 춤사위	같	⑧ 회오리 바람 춤사위
⑨ 감상기 앞 춤사위	비	⑨ 다듬이질 춤사위
⑩ 모듬 춤사위	비	⑩ 쳐 울리기 춤사위
⑪ 도랑 춤사위	비	⑪ 꽃봉오리 춤사위

* 같 : 같다, 비 : 비슷하다

1. 신맞이 춤사위와 길 열기 춤사위 비교

1) 신맞이 춤사위와 길 열기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 (1) 제 4박에 왼 손목을 돌려 지전을 왼팔 위에 얹는다.
- (2) 양팔을 든 자세로 4호간을 서 있는 후 천천히 왼발부터 2박 1걸음씩 옮긴다.
- (3) 왼발부터 앞으로 8박자 간 후, 제자리에서 4호간 어깨 짓 한다. 오른 쪽으로 제 13박에 왼발, 오른발 가고 제 14박에 왼발을, 제 15, 16박에 오른발을 놓으며, 몸의 방향을 왼쪽으로 옮긴다.
- (4) 같은 방법으로 제 17박에 왼발, 오른발, 제 18박에 왼발, 제 19, 20박에 오른발을 놓으며 몸의 방향을 왼쪽으로 돌려 뒤를 향한다. 다시 제 21박에 왼발, 오른발, 제 22박에 왼발, 제 23, 24박에 오른발을 놓으며 정면을 보고 선다.

2) 신맞이 춤사위와 길 열기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이 춤사위는 굿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신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추어지는데, 기타 동작들의 基本이 된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회전을 하면서 추고(원필녀, 1992). 진도 씻김굿에서는 인위적이고 형식화된 춤이 아닌(이동희, 1983). 몸을 어느 지점에서 정지시킨 밀체와 끝체에 의하여 춘다(김일화, 1991).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초감제 중 배포도업침 부분에서 신맞이 춤사위를 볼 수 있는데 신을 맞이하고 청하는 청신의 감정으로 추어지는 춤사위이다. 또한 이 춤사위는 군문열림 부분에서 도랑춤에서도 나오는

데 격렬한 춤사위에서도 이 춤사위는 행해지며 굿의 대목에 따라 천천히 추어지기도하며 도랑춤 처럼 격렬한 춤이 있는 부분에서는 빠른 춤사위로 진행이 된다.

진도 셋김굿에서는 초가 망석 부분에서 저승길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길 열기 춤사위에서 볼 수 있는데 거센 바람이나 액을 막는다는 감정으로 추어진다. 또한 고평이 부분에서도 이 춤사위가 행해지는데 이 대목에서는 지전춤과 고평이 춤이 함께 추어진다

〈표 2〉 신맞이 춤사위와 길 열기 춤사위 비교

비 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굿	진도 셋김굿
	신 맞이 춤사위	길열기 춤사위
춤의 형태	회전을 하면서 추어진다 청신무 : 천천히 회전하면서 춘다. 오신무·송신무: 격렬하게 회전하면서 추어진다.	밀체와 끝체에 의하여 춘다 큰 움직임이 없이도 충분히 동작이 연결되는 춤사위이다.
춤의 기능 (의미)	청신의 감정 굿의 마지막 부분인 송신제에서는 청신의 감정처럼 다시 신을 보내는 엄숙한 마음으로 조용히 추어진다.	저승길로 인도, 액막이 감정으로 춘다.

2. 손가락 춤사위와 바람막이 춤사위 비교

1) 손가락 춤사위와 바람막이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 (1) 제 1박에 제자리에서 오른손의 지전을 옆으로 뿌린다.
- (2) 제2박에 오른손목을 돌려 지전을 오른팔 위에 얹는다.
- (3) 제3박에 왼손의 지전을 옆으로 뿌린다.
- (4) 손가락 춤사위와 바람막이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이 춤사위는 아주 조용하며 아무런 동작 없이 그대로 선 자세로 口傳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시골에 가면 새를 잡아먹는다는 독수리가 공중에서 가라앉지도 날아가지도 않는 자세에서 본 뗏다고 한다.(이동희, 1983).

제주도 칠 머리 당 굿의 감장 도는 춤사위와 흡사한데 정면으로 서서 팔을 구부려 앞으로 하고 하나에 호흡을 들면서 발굽을 들었다 굽힐 때 앞으로 들고 있던 팔도 같이 들었다 놓는다(원필녀, 1992). 손가락 춤사위는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서 제를 행할 때 조용히 행해지는데 청신무 도입부분이나 송신무 도입부분에서 심방이 제단을 향해 앉거나 서서 추어지는 동작이다. 정지된 동작이기 때문에 발동작은 없으며 오로지 손 동작으로만 동작이 표현된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과 진도 씻김곳의 춤사위 비교 연구 : 지전춤을 중심으로

진도 씻김곳에서는 수평형에 속하는 춤사위이다(이동희, 1983).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도처럼 동작이 크지는 않고, 조용한 가운데 동작은 적으나 동선이 길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초감제 때 부정고개와 새를 다리고 부분에서 추어진다. 진도 씻김곳에서는 공물을 제시하는 마마신을 접대하는 손님 곳에서 추어진다. 이 춤사위는 손님곳과 제석곳 그리고 고틀이 장면에서 추어지는데 정지 상태에서도 추어지지만 손가락 춤사위와는 달리 다른 부분에서 자주 행해지는 춤사위이며 신을 맞이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춤사위로 대표적이다.

〈표 3〉 손가락 춤사위와 바람막이 춤사위 비교

비 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곳	진도 씻김곳
	손가락 춤사위	바람막이 춤사위
춤의 형태	발 동작은 없으며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서 이 동작이 행해진다. 조용한 분위기로 추어진다.	수평형에 속하는 춤사위로 동작은 적으나 동선이 길다. 양팔을 벌리고 느린 장단으로 추고, 빠른 장단일 지라도 동작 자체는 변화가 거의 없다. 공물을 제시하는 마마신을 접대하는 손님곳, 제석곳, 고틀이에서 추어진다.
춤의 기능 (의미)	제주도에서는 청신에서 추어진다. 심방의 곳 절차에 따라 송신에서도 추어질 때가 있다.	이 춤사위는 신을 맞이하고 즐겁게하고 접대하는 뜻으로 추어진다.

3. 감장 도는 춤사위와 외 바람막이 춤사위 비교

1) 감장 도는 춤사위와 외 바람막이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 (1) 제 1박에 오른손의 지전을 옆으로 뿌린다.
- (2) 제 2박에 오른손목을 돌려 지전을 오른팔 위에 얹는다.
- (3) 제 3박에 왼손의 지전을 옆으로 뿌린다.
- (4) 제 4박에 왼손의 지전을 오른팔 위에 얹는다.

2) 감장 도는 춤사위와 외 바람막이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이 춤사위는 똑같이 지전을 든 오른손을 수평으로 세우고 살풀이 장단으로 시작을 한다. 여기서 살풀이 장단은 무속 장단의 하나로 굿거리장단을 아주 천천히 치는 장단이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이 동작을 하면서 맴돌기 동작을 한다. 이 춤사위는 단 쌓기 춤사위와 같은 동작이며 도랑춤에 들어가기 전에 추는 사위이기도 하며 옆으로 뿌려 어깨 메기 춤사위도 이 춤사위에 포함된다. 신을 모셔서 즐겁게 하는 오신무에도 추어지는데 격렬하게 뛰면서 돌고 장단이 빠르게 진행된다. 진도 씻김곳에서는 지전을 어깨에 걸치고 서서 진양조의 巫歌를 부르는데서 시작한다. 이 춤사위는 장단은 느리게 시작되나 서서히 움직이면서 동작이 빨라진다.

이 춤사위는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초감계 중 군문 열림 부분의 감장 도는 춤사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동작은 용왕신을 불러 들어서 신을 맞이하는 청신무로 추어진다. 진도 셋김곳에서는 초가망석 부분 바람막이 춤사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동작은 신이 아닌 망인을 불러들일 때 추어진다. 쳐올리기 춤사위에서도 이 춤사위가 연결되면서 다른 춤사위와 이어진다. 이슬털기(씻김)부분에서도 이 춤사위가 행해지기도 한다.

〈표 4〉 감장 도는 춤사위와 외 바람막이 춤사위 비교

비 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곳	진도 셋김곳
	감장 도는 춤사위	외 바람막이 춤사위
춤의 형태	살풀이 장단으로 시작해서 땀들기 동작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진양조의 巫歌를 부르는데서 시작하여 초가망석 부분의 바람막이 춤사위를 하기 전에 추어진다.
춤의 기능 (의미)	요왕신을 불러 들어서 신을 맞이하는 청신무를 출 때 추어진다.	진도에서는 신이 아닌 망인을 불러들일 때 이 춤사위가 추어진다.

4. 앞 춤사위와 가세질(가위질) 춤사위 비교

1) 앞 춤사위와 가세질(가위질)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 (1) 먼저 길 열기를 4호간 한 후 지전을 제 1박에 오른손 밑으로 왼손 위로하여 힘차게 뿌린다.
- (2) 제 2박에 다시 왼손 밑으로 오른손을 위로하여 지전을 힘차게 뿌린다.
- (3) 제 3박에 (1), (2)를 연속으로 재빠르게 교차한다.
- (4) 제 4박에 양손의 지전을 위로 뿌린다.

2) 앞 춤사위와 가세질(가위질)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이 춤사위는 살풀이 춤사위 중 가장 중요한 동작으로 쓰여지고, 현재 무속 춤에 영향을 주고있는 춤사위이다.(이동희, 1983). 이 춤사위는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정해진 발 동작은 아니나 뛰면서 추어진다. 앞에서 서술 한바와 같이 칠 머리 당 곳에서는 심방이 자유로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진 곳으로 이 춤사위 또한 정해진 동작이 아니므로 때론 많은 장단으로 때론 짧게 행해지기도 하며 가장 널리 쓰여지는 동작이기도 하다. 진도 셋김곳에서는 무릎을 굽혀 뻗면서 왼쪽 가슴 앞으로 당기는 일정한 형식의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추어진다. 이 춤사위는 진도 셋김곳의 여러 부분에서 많이 추어지는데 군무에서 보여지듯이 신이 청해져서 신을 즐겁게 하거나 접대할 때 다시 망인을 보낼 때 중요하게 쓰여지는 동작이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군문 열림 부분에서 격렬하게 추어지는데(원필너, 1992). 이 부분에서 추어지는 춤을 “도랑춤”이라고 하며, 곳 당을 긴장시키면서 흥분 속으로 몰아넣은 후 심방이 요란스럽게 춤을 춘다. 도랑춤은 빠른 동작으로 곳을 흥분으로 몰아넣는 춤으로 단 쌓기 춤사위 다음으로 다른 춤사위를 연결해

제주도 칠 머리 당 굿과 진도 씻김굿의 춤사위 비교 연구 : 지전춤을 중심으로

서 빠르게 진행된다. 진도 씻김굿에서는 영신(맞이한 신)한 신을 접대하는 오신제 중에서 추어지며, 망인의 원한을 달래주는 해감제 에서도 이 춤사위가 추어진다.

〈표 5〉 앞 춤사위와 가세질(가위질) 춤사위 비교

비 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굿	진도 씻김굿
	앞 춤사위	가세질 (가위질) 춤사위
춤의 형태	정해진 발동작이 아니 격렬하게 뛰면서 추어진다.	살풀이 춤사위중 가장 중요한 동작으로 현재 쓰여지고 있는 춤사위인데 일정한 형식의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추어진다.
춤의 기능 (의미)	군문 열림 부분에서 격렬하게 추어지는데 굿판을 긴장시키면서 심방이 요란하게 추는 춤사위이다.	영신(맞이한 신)한 신을 접대하는 오신제 중에서 추어지며 망인의 원한을 달래주는 해원제 에서도 이 춤사위가 추어진다.

5. 윗 춤사위와 태극무늬 춤사위 비교

1) 윗 춤사위와 태극무늬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 (1) 제 1박에 왼손 위, 오른 손 밑으로 지전을 손목을 사용하여 안으로 뿌린다.
- (2) 제 2박에 오른손 위, 왼손 밑으로 제 1박과 같은 방법으로 지전을 뿌린다.
- (3) 제 3박에 (1), (2)를 빠르게 두 번 뿌린다.
- (4) 제 4박에 (1), (2), (3)을 빠르게 지전을 뿌린다.

2) 윗 춤사위와 태극무늬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이 춤사위는 양팔을 몸 앞에서 따로 흔들면서 원을 그리듯이 돌려 태극무늬 처럼 나타내는 동작이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굿에서는 감장 도는 춤사위가 추어지는 부분에서 이 동작이 같이 추어지는데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춤을 춘다. 이 춤사위는 상하로 움직 이기도하며 단 쌓기 춤사위와 도랑춤에서 많이 추어진다. 심방이 흥이 날 때 주로 뛰면서 행해진다. 진도 씻김굿에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발 동작이 없이 진행을 한다. 태극무늬 춤사위는 고틀이 부분에서 같이 추어지는데 지전과 고틀이 천이 같이 등장하면서 굿의 중간부분이나 끝부분에서 휘몰아치기도 한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굿에서는 초군문에 인정검 이라는 대목에서 청신무와 오신무를 출 때 추어지는데 이는 신과의 소통을 하기 위하는 감정으로 춤을 춘다(원필녀, 1992). 진도 씻김굿에서는 망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영든 말리와 망인의 혼령을 위로해 주는 넋 올리기 부분에서 이 춤사위가 추어진다(이동희, 1983). 이슬털기(씻김)부분에서 많이 추어지며 이 부분에서는 지전춤과 함께 명주춤, 신칼춤 등을 같이 춘다.

〈표 6〉 윗 춤사위와 태극무늬 춤사위 비교

비 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곳	진도 씻김굿
	윗 춤사위	태극무늬 춤사위
춤의 형태	제자리를 맴돌면서 추어진다 도랑춤을 들어가기전이나 도랑춤 중간부분에서 서서추거나 돌면서 춘다.	서 있는 상태에서 발동작 없이 손동작으로만 거의 진행된다. 군무로 추어지는데 고틀이 천과 함께추어진다.
춤의 기능 (의미)	초군문에 인정검에서 청신무와 오신무를 출 때 추어지는데 이는 신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감정으로 춤을 춘다.	망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영돈 말리와 망인의 혼령을 위로해 주는 넋올리기 부분에서 추어진다. 고풀이 부분에서 같이 추어진다.

6. 팔에 걸치기 춤사위와 좌우 치기 춤사위 비교

1) 팔에 걸치기 춤사위와 좌우 치기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 (1) 제 1박에 양손을 함께 오른쪽으로 돌면서 지전을 뿌린다.
- (2) 제 2박에 양손을 함께 왼쪽으로 돌면서 지전을 뿌린다.
- (3) 제 3박에 오른쪽, 왼쪽으로 빠르게 지전을 뿌린다.
- (4) 제 4박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빠르게 지전을 뿌린다.

같은 동작을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반복한다.

〈표 7〉 팔에 걸치기 춤사위와 좌우 치기 춤사위 비교

비 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곳	진도 씻김굿
	팔에 걸치기 춤사위	좌우치기 춤사위
춤의 형태	왼손에 주발 물을 들고 시계반대 방향으로 맴돌면서 제자리에서 추어진다. 도랑춤에서 많이 추어지며 굿의 끝부분에서도 많이 추어진다.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지전을 들고 좌우로 치면서 돈다. 빠른 동작과 느린 동작이 반복되면서 추어진다.
춤의 기능 (의미)	신들이 문을 여는 장면을 연상케 하면서 격렬하게 추어지는데 초감제와 군문열림, 새를 다리고 부분에서 추어진다.	영신한 신을 접대하는 오신제 중에서 조상신을 접대하는 조상굿에서 추어진다.

2) 팔에 걸치기 춤사위와 좌우 치기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이 춤사위는 신을 모시는 부분에서도 추어진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왼손에 주발 물을 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춘다. 이 춤사위는 굿의 모든 부분에서 활용되며, 도랑춤과 굿의 격렬한 다른 부분에서 추어진다. 동작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주로 도는 부분에서 행해진다. 진도 씻김굿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지전을 들고 좌우로 치면서 돈다. 군무에서 좌우치기 춤사위는 굿을 종반으로 향하게 하는

느낌으로 신과의 대화로 이어지는 느낌이며, 뉘풀이, 길뉘음, 종천등 등 곳의 중요한 부분에 추어진다. 또한 이 춤사위는 신칼춤에서도 자주 쓰이는 춤사위이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초감제와 군문 열림, 새를 다리고 부분에서 추어지는데(원필녀, 1992). 신들이 문을 여는 장면을 연상케 하면서 격렬하게 추어진다. 진도 씻김곳에서는 영신한 신을 접대하는 오신제 중에서 조상신을 접대하는 조상곳에서 이 춤사위가 추어진다. 군무로 추어지는데 곳의 중간부분과 망인을 불러 접대하는 부분에서 추어진다.

7. 윗 춤사위와 상모놀음 춤사위 비교

1) 윗 춤사위와 상모놀음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 (1) 제 1박에 오른손을 머리위로 들어 밖에서 안으로 원을 그리듯 휘돌린다.
- (2) 제 2박에 왼손을 (1)과 같이 한다.
- (3) 제 3박에 (1), (2)를 한번씩 한다.
- (4) 제 4박에 (1), (2), (3) 순으로 빠르게 휘돌리면서 오른쪽부터 몸의 중심을 옮긴다.

〈표 8〉 윗 춤사위와 상모놀음 춤사위 비교

비 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곳	진도 씻김곳
	윗 춤사위	상모놀음 춤사위
춤의 형태	정해진 동작 보다는 즉흥무적인 분위기로 머리 위에서 상모를 돌리듯이 추어진다.	머리위에서 상모를 돌리듯이 일정한 동작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군무에서 고풍이 부분과 같이 추어진다.
춤의 기능 (의미)	새를 다리고와 낙하실 놀림 부분에서 빠른동작으로 추어진다. 곳의 분위기를 한 층 더 높일 때 단 쌓기 춤사위와 함께 추어진다.	망인의 원한을 달래주는 해원제에서 추어지며, 격렬한 감정으로 땀뿜면서 추어진다.

2) 윗 춤사위와 상모놀음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이 춤사위는 지전을 든 양팔이나 한 팔을 머리 위에서 상모를 돌리듯 원을 그리듯이 휘돌린다. 이 춤사위는 제주도 칠 머리 당 곳과 진도 씻김곳에서 거의 같은 동작으로 보여지는데, 전자의 것은 정해진 동작보다는 즉흥무적인 분위기고, 후자는 일정한 동작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단 쌓기 춤사위와 흡사하다. 이 춤사위는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느낌으로 추어지는데 심방의 그때 그때의 기분에 따라 많이 돌거나 뛰고 한다.

이 춤사위는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새를 다리고와 낙하실 놀림 부분에서 추어진다. 진도 씻김곳에서는 망인이 원한을 달래주는 해원제 에서 추어지며, 격렬한 감정으로 땀뿜면서 추어진다. 군무에서 빠른 장

단과 격렬한 감정이 합쳐져서 휘 몰아 친다. 길 닦음 부분에서도 이 춤사위가 행해지며 굿의 모든 부분에서 이 춤사위는 굿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8. 원 그리기 춤사위와 회오리 바람 춤사위 비교

1) 원 그리기 춤사위와 회오리바람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 (1) 제 1박에 양팔을 등글게 위로 올리며 지전을 바깥으로 뿌린 후 등글게 내린다.
- (2) 제 2, 3, 4박은 (1)과 같다.

이 동작은 언뜻 보기에는 쳐 올리기 춤사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위로 올렸을 때 여러 개의 원이 보이는 형상이다.

〈표 9〉 원 그리기 춤사위와 회오리바람 춤사위 비교

비 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굿	진도 셋김굿
	원 그리기 춤사위	회오리 바람 춤사위
춤의 형태	가장 격렬하고 빠른 동작으로 추어진다.	진도도 마찬가지로 가장 격렬하고 빠른 동작으로 이루어진 춤사위이다. 손동작이 위로 갔을 때 보면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듯이 여러 번 행해진다.
춤의 기능 (의미)	망인의 혼령을 전송할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회오리 바람을 막으려는 감정으로 춘다.	신이 못 붙게 하여 극락으로 올라가게 하려고 할 때 추어진다.

2) 원 그리기 춤사위와 회오리바람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이 춤사위는 제주도 칠 머리 당 굿과 진도 셋김굿의 절차 중에서 가장 격렬한 움직임과 격한 감정으로 출 때 행해진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굿에서는 양팔을 들고 지전을 위에서부터 떠는 듯이 흔들며 앞을 향해 경쾌한 동작으로 차차 아래로 내리는 데 땀들면서 추는 춤사위와 모듬 춤사위가 이와 흡사하다. 이 춤사위는 단 쌓기 춤사위와 도랑춤 부분에서 격하게 추어진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굿에서는 망인의 혼령을 전송할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회오리 바람을 막으려는 감정으로 추어진다. 진도 셋김굿에서는 고틀이 부분에서 고틀이 춤과 함께 군무로 추어지는데 언뜻 보기엔 쳐올리기 춤사위와 비슷하나 위에서 원을 그리면서 내려온다는 점이 다르다. 굿을 더욱 더 고조시키면서 망인이나 신을 모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춤사위이다. 진도 셋김굿에서는 신이 못 붙게 하여 극락으로 올라가게 할 때 추어진다.(이동희, 1983). 말하자면 망인이 저승길로 갈 때 나쁜 신이 못 붙게하여 극락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춤사위가 여러번 행해진다.

9. 감상기 앞 춤사위와 다듬이질 춤사위 비교

1) 감상기 앞 춤사위와 다듬이질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 (1) 제 1박에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오른손을 위로 들어 지전을 뿌린다.
- (2) 제 2박에 오른손을 내민다.
- (3) 제 3박에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왼손을 위로 들어 지전을 뿌린다.
- (4) 제 4박에 왼손을 내린다.
- (5) 제 5박에 오른발을 왼 발 옆에 놓아 제자리에서 제8박까지 몸 앞에서 빠르게 다듬이질을 하듯이 지전을 던진다.

2) 감상기 앞 춤사위와 다듬이질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이 춤사위는 양손을 교대하면서 다듬이질하듯 상하로 흔드는 동작이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한곳에서 하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돌면서 이 동작을 추는데, 이 춤사위는 뿌려 어깨 메고 뿌려 내리기 춤사위와 비슷하다. 도랑춤에서 이 춤사위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곳의 종반과 빠른 장단부분에서 일정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추어진다. 진도 씻김곳에서는 거의 제자리에서 양팔을 사선으로 흔들고 춘다. 이 춤사위는 쳐올리기 춤사위와 흡사하나 쳐올리기 춤사위가 팔을 같이 뿌린다면 이 춤사위는 양팔을 번갈아 가면서 뿌린다. 이 춤사위는 저승 갈 때 쉬어갈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자는 뜻으로 예전에는 다듬이질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이동희, 1983). 동작에서 보여지듯 시간이 없다는 의미로 양팔을 번갈아가면서 휘젓듯이 보여진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낙하실이 놀림과 차사 영 맞이 부분에서 추어진다. 진도 씻김곳에서는 고틀이와 이슬 털기(씻김)부분에서 추어진다.

〈표 10〉 감상기 앞 춤사위와 다듬이질 춤사위 비교

비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곳	진도 씻김곳
	감상기 앞 춤사위	다듬이질 춤사위
춤의 형태	한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돌면서 추어진다. 도랑춤부분이나 다른 빠른 동작 부분에서 이 춤사위가 행해진다.	거의 제자리에서 양팔을 사선으로 흔들고 춘다. 발 동작 없이도 빠른 동작으로 보인다.
춤의 기능 (의미)	낙하실이 놀림과 차사 영 맞이 부분에서 추어진다.	고뿔이와 이슬털기(씻김)부분에서 추어진다. 다듬이질 하듯 춘다. 망인을 저승으로 보낼 때 서둘러 가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10. 모듬 춤사위와 쳐 올리기 춤사위 비교

1) 모듬 춤사위와 쳐 올리기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 (1) 제 1박에 양손을 위로 들어 지전을 뿌린 후 내린다.
- (2) 제 2박은 (1)과 같다.
- (3) 제 3박에 양손을 빠르게 두 번 위로 뿌렸다 내린다.
- (4) 제 4박은 (3)과 같다.

2) 모듬 춤사위와 쳐 올리기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이 춤사위는 이 가락에서 저 가락으로 넘어갈 때 옆을 주면서 추는 동작인데, 양팔을 아래에서 위로 뿌려 올리는 동작으로 때로는 한 팔만 쳐 올리는 수도 있다. 이 춤사위는 신령을 접대하는 마음과 망인이 혼령을 위로해 주는 감정으로 추어진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감상기 들고 추는 춤에서 청신 행위와 심방이 축원을 할 때 추어진다.(원필녀, 1992). 감장 도는 춤사위의 정면 부분에서도 이 같은 동작이 행해진다. 이 춤사위는 모든 춤사위에 다 연결되며 곳의 각부분에서 볼 때 쉬어가기도 하면서 이 춤사위로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제주 칠 머리 당 곳에서는 청신무에서 많이 보여진다.

진도 씻김굿에서는 오신제, 해원제, 송신제 등 여러 부분의 굿의 절차에서 자주 쓰이는 동작이다.(이동희, 1983). 이 춤사위는 군무에서 고평이와 함께 추어지며 굿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동작 중의 하나이다.

〈표 11〉 모듬 춤사위와 쳐 올리기 춤사위 비교

비 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곳	진도 씻김굿
	모듬 춤사위	쳐 올리기 춤사위
춤의 형태	이가락에서 저가락으로 넘어갈 때 추어지는데 위로 뿌리면서 추어진다.	진도 역시 이 가락에서 저가락으로 넘어갈 때 추어진다. 군무에서 고평이 춤과 같이 행해진다.
춤의 기능 (의미)	신령을 접대하는 마음과 망인이 혼령을 위로해 주는 감정으로 추어진다. 제주에서는 감상기 들고 추는 춤에서 청신행위와 심방이 축원을 할 때 추어진다.	오신제와 해원제 송신제 등 여러부분의 굿의 절차에서 자주 쓰이는 춤사위이다.

11. 도량 춤사위와 꽃봉오리 춤사위 비교

1) 도량 춤사위와 꽃봉오리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 (1) 제 1박과 제 2박에 양팔을 등글게 위로 올리며 몸의 중심을 오른발에 둔다.
- (2) 제 3박과 제 4박에 양 손목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 지전을 팔에 걸치는 듯 하고 몸의 중심을 왼발에 둔다.

이 춤사위는 춤과 춤 사이에 끼워 넣는다.

2) 도랑 춤사위와 꽃봉오리 춤사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

이 춤사위는 아름다운 꽃의 형태를 그리는 춤사위로서 양팔을 등글게 위로 올려서 양 손목을 밖에서 안으로 꺾어 지전을 옮겨주며 추어진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땀돌면서 동작이 행해지는데 토끼 땀을 뿜듯 뛰면서 하기도 하고 두발이 착지 하듯 몸의 왼쪽으로 동시에 내리고 착지하면 두팔도 동시에 내린다.

감장도는 춤사위와 원그리기, 단 쌓기 춤사위와 함께 행해진다. 진도 씻김굿에서는 발 동작이 없이 제자리에서 행해진다. 머리위에서 꽃 봉오리 모양으로 만들면서 조용하게 행해진다.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에서는 단 쌓기 춤사위가 이와 비슷하며 신을 청하여 어를 때 추어진다.(원필너, 1992). 진도 씻김굿에서는 신을 맞이하는 춤사위로 길 열기 춤사위 다음으로 추어지는데 망인의 혼령을 저승으로 보내주는 송신제 중에서 극락왕생을 인도하는 길 닦음 부분에서 추어진다.

〈표 12〉 도랑 춤사위와 꽃봉오리 춤사위의 비교

비 교	제주도 칠 머리 당 곳	진도 씻김굿
	도랑 춤사위	꽃봉오리 춤사위
춤의 형태	아름다운 꽃의 형태로 칠머리 당곳에서는 땀돌면서 추어진다. 이 춤사위는 단 쌓기 춤사위와 비슷하다.	진도에서는 발 동작 없이 제자리에서 손동작으로만 추어진다.
춤의 기능 (의미)	신을 청하여 어를 때 추어진다.	신을 맞이하는 춤사위로 길열기 춤사위 다음으로 추어지는데 망인의 혼령을 저승으로 보내주는 송신제 중에서 극락왕생을 인도하는 길 닦음 부분에서 추어진다.

N.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 칠 머리 당 곳과 진도 씻김굿의 지전춤을 각종 문헌자료와 Video tape, 사진,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제의적 절차와 형식, 기능, 무무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고, 현장 조사와 대담을 통하여 무속 공연을 촬영 편집하여 각 장마다의 춤사위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의 춤사위의 형태는 회전하는 형태와 앉아서 손동작만으로 춤을 추며, 심방이 격렬하게 뛰면서 단순한 동작을 규칙적으로 거듭 반복하는 춤사위가 많았으며, 진도 씻김굿에서는 조용하게 서서 지전을 가지고 팔 동작에 변화를 주면서 추고, 회전보다는 앞뒤로 움직이거나 제자리에 서서 움직임이 없이 춤이 진행되었다.

2. 제주도 칠 머리 당 곳의 춤사위에 내포되어 있는 감정은 연극적이면서 주술성이 강한 상징적인 동작이

많으며, 진도 셋김굿에서는 축원적 이면서 제의 적인 성격이 강하며 대부분의 춤의 무거우면서 소박하면서 인위적으로 꾸밈이 없으며, 공간 이동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춤이 자유롭게 행해진다.

3. 제주도 칠 머리 당 굿의 춤의 기능으로는 무속의식의 기능에 역점을 두어 제처에 따른 심방의 歌 舞 기술을 통하여 신령과 융합하는 체험을 하고 심방과 회중이 즐겁게 춤을 춤으로서 신을 놀리어 神의 뜻을 움직이고 神이 과거의 역량을 굿판에서 실연하는 功利的인 것으로 추어진다. 진도 셋김굿은 무가와 무가를 연결 지어 굿을 진행하며, 굿 의식을 종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의 뜻을 실연하거나 재연하는 기능을 가지며, 각 거리의 내용을 춤으로서 설명해 준다.

4. 무속의 춤사위가 다른 무용에 미친 영향은 한국무용 춤사위가 무속에 근간을 둔 춤사위가 많았고, 무속의 춤사위가 현대무용의 작품에 영향을 미친 것은 현대무용 작품이 무속신앙에 현대무용 형식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현대무용 작품 속에서 지전춤의 대표적인 춤사위를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 김미영(1995). 제주도 칠 머리 당 영등굿의 구성 및 북 가락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일화(1991). 지전춤의 춤사위 연구: 진도 셋김굿 중에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정희(1993). 제주도 巫俗舞의 실체와 特異性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박영주(1996). 진도 셋김굿에 내재된 무용예술의 사회적 수용가치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양은주(1989). 우리 나라 굿춤의 상징성 연구: 셋김굿의 지전춤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원필녀(1992). 제주도 굿에 나타난 춤에 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동희(1983). 진도셋김굿의 지전춤.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문옥(1992). 황해도 배연신 굿에 나타난 巫舞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명실(1984). 진도 셋김굿의 巫舞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미발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창훈(1991). 제주도 칠 머리 당 굿의 춤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향(1987). 무속에 나타난 '恨'과 '신명', 그 양상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정예연(1982). 호남 巫舞에 대한 고찰.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최인혜(1998). 황해도 굿의 형식과 구성에 관한 분석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접 수 일 : 2003. 11. 30.

게재확정일 : 2003. 12. 12.